‘佛法 공동체’가 인류 미래의 ‘답’



리더에게 聽 하다

콴딘 싱캄(Kwandin Singkam · 65)
태국 불교수행공동체 시사아속 대표

인류의 삶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와 진화를 거듭했다. 그 변화와 진화로 인해 사회는 복잡해지고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공존’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넘어 수많은 ‘나’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여러 모색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공존’의 숙제를 풀어가는 곳이 있다. ‘공동체’다.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생활의 형태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볼 수 있다.

6월 30일 경남 거창에서는 사부대중 공동체 ‘(사)행복한 마을’이 심검당과 도량의 중심부 제너홀의 오픈식을 갖고 공동체의 시작을 알렸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무경계’의 삶으로 ‘모두의 행복한 삶’을 표방하는 ‘행복한 마을’은 사부대중이 모여 수행하며 생활하는 수행공동체다.

행복한 마을의 오픈식에는 뜻깊은 인사가 함께 했다. 태국을 대표하는 불교수행공동체 시사아속의 콴딘 싱캄(Kwandin Singkam) 촌장이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구는 공동체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답이 된다고 말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공동체 생활이 심화되는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인류의 참된 행복과 미래가 점점 요원해지는 오늘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Q. 태국 시사아속 공동체는 불교수행공동체 중 모범이 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불교수행 공동체 시사아속을 유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시사아속 공동체를 처음 설립한 포티락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굴 공동체를 생각하고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 ‘보원 아속’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셨고, ‘보원아속’은 마을, 사원,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사아속 공동체는 48년 동안 지속해왔고 현재는 9곳의 공동체로 늘어났으며, 30여 개의 지사들로 구성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불교수행공동체를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포티락 스님을 중심으로 재가자 5명으로 출발한 저희 공동체는 현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태국 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공동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사아속은 엄격하게 오계를 지키는 계율이 기본이 되고 오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채식, 유기농업, 교육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기본을 지켜 나가는 것이 시사아속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Q. 시사아속은 계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계 가운데 첫 번째인 살생하지 말라를 위해 유기농업을 시작했고, 탁월한 유기농업을 일궈 생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삶의 모습을 설명해주시고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요?

시사아속 공동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거나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채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농사는 유기농으로 실시하고 농약,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사를 짓는 것은 공동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오계를 지키며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 비료도 자체 생산합니다. 화학비료를 쓰면 벌레가 죽고, 화학비료로 키운 식물을 먹은 저희도 병들며 땅도 오염이 됩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지만 유기농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땅이 일하는 시기를 알고 자연과 대화하듯 살아갑니다. 농산물이 자라는 기간에 따라 크게 짧은 기간, 중간 기간, 긴 기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농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맞춰 사용하는 비료가 다르고 꽃과 과일, 식물 등 생산물에 따라 비료를 줍니다. 생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료만 20가지가 넘습니다. 비료는 캡슐 형태, 액체 형태 등 모든 상황에 맞춰 제품을 만든 방식도 다릅니다.

태국 불교공동체 시사아속
1971년 포티락 스님 설립
9개 공동체 30여 지사로 확대
5명으로 시작 현재 5000명 생활
불살생 등 5계 철저히 실천
채식주의 원칙, 모든 농사 유기농
생산 후 저렴하게 판매, 나눔

죽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더니 저희가 먼저 건강해졌고 행복해졌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며, 계를 지키는 삶 자체가 자비가 되고 보살의 마음을 배웁니다. 유기농 비료는 계를 지키기 위해 제작하고 만들었는데 저희 공동체의 대표적인 생산 약품이 되었습니다.

Q.현재 세계는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라면 생명가치마저 무시합니다.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자급자족 시스템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 파괴, 생명 경시 및 혐오 등 여러 문제점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 중요합니다. 경제 기반을 갖추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현하며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경제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엔코지로 가는 여정

B5 문화
L.M.B.싱어즈 20주년 기념 공연

B6 학술
2019 한국교수 불자대회